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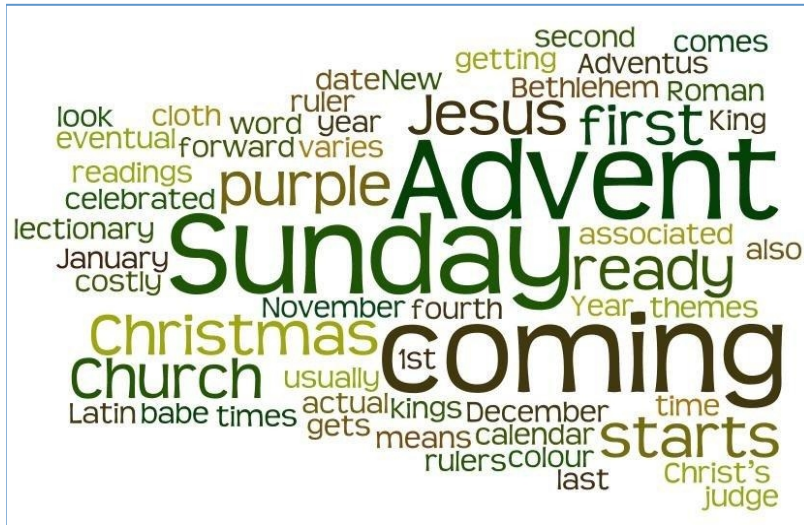
## 12 Days of Advent Devotions

(대강절 묵상을 위한 성경본문)

'013 가족과 함께하는

# 대강절 묵상자료

## 12 Days of Advent Devotions



## 낙스빌 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Knoxville

108 Farlow Dr.  
Knoxville, TN 37934  
(865) 675-2065

[www.knoxkoreanchurch.org](http://www.knoxkoreanchurch.org)

### Day 1 (December 11, 2013)

Morning Psalms 50; 147:1-11  
First Reading Amos 8:1-14  
Second Reading Revelation 1:17-2:7  
Gospel Reading Matthew 23:1-12  
Evening Psalms 53; 17

### Day 2 (December 12, 2013)

Morning Psalms 18:1-20; 147:12-20  
First Reading Amos 9:1-10  
Second Reading Revelation 2:8-17  
Gospel Reading Matthew 23:13-26  
Evening Psalms 126; 62

### Day 3 (December 13, 2013)

Morning Psalms 102; 148  
First Reading Haggai 1:1-15  
Second Reading Revelation 2:18-29  
Gospel Reading Matthew 23:27-39  
Evening Psalms 130; 16

### Day 4 (December 14, 2013)

Morning Psalms 90; 149  
First Reading Haggai 2:1-9  
Second Reading Revelation 3:1-6  
Gospel Reading Matthew 24:1-14  
Evening Psalms 80; 72

### Day 5 (December 16, 2013)

Morning Psalms 122; 145  
First Reading Zechariah 1:7-17  
Second Reading Revelation 3:7-13  
Gospel Reading Matthew 24:15-31  
Evening Psalms 40; 67

### Day 6 (December 17, 2013)

Morning Psalms 33; 146  
First Reading Zechariah 2:1-13  
Second Reading Revelation 3:14-22  
Gospel Reading Matthew 24:32-44  
Evening Psalms 85; 94

## 대강절 – 기다림의 시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130:5-6)

대강절 (advent). 이 단어는 adventus 라는 라틴어로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단들이 사용하는 Revised Common Lectionary 에서 선택된 대강절 성경 본문들을 보면 두가지 중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즉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대강절은 준비와 회개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대강절에 사용되는 강대상보 역시 회개를 의미하는 보라색입니다. 소망을 의미하는 파란색 강대상보를 사용하는 교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한 것처럼, 대강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를 회개하며 금식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식만큼 기다림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영성 훈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 Day 7 (December 18, 2013)

Morning Psalms 50; 147:1-11  
First Reading Genesis 3:8-15  
Second Reading Revelation 12:1-10  
Gospel Reading John 3:16-21  
Evening Psalms 53; 17

### Day 8 (December 19, 2013)

Morning Psalms 18:1-20; 147:12-20  
First Reading Zephaniah 3:14-20  
Second Reading Titus 1:1-16  
Gospel Reading Luke 1:1-25  
Evening Psalms 126; 62

### Day 9 (December 20, 2013)

Morning Psalms 102; 148  
First Reading 1 Samuel 2:1b-10  
Second Reading Titus 2:1-10  
Gospel Reading Luke 1:26-38  
Evening Psalms 130; 16

### Day 10 (December 21, 2013)

Morning Psalms 90; 149  
First Reading 2 Samuel 7:1-17  
Second Reading Titus 2:11-3:8a  
Gospel Reading Luke 1:39-48a (48b-56)  
Evening Psalms 80; 72

### Day 11 (December 23, 2013)

Morning Psalms 122; 145  
First Reading Jeremiah 31:10-14  
Second Reading Galatians 3:15-22  
Gospel Reading Luke 1:67-80  
Evening Psalms 40; 67

### Day 12 (December 24, 2013)

Morning Psalms 33; 146  
First Reading Isaiah 60:1-6  
Second Reading Galatians 3:23-4:7  
Gospel Reading Matthew 1:18-25  
Evening Psalms 85; 94

우리의 배고픔과 허기를 즉각 채워주는 특권을 누리 왔습니다. 음식과 각종 물질은 항상 우리 가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신속하고 편의를 추구하는 즉각적인 만족(instant gratification)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유도해왔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부분을 **늦추며/기다리며** (delayed gratification) 나를 채우기 위한 생각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절제와 기다리는 영성을 훈련하면서 나의 말, 나의 소비, 나의 입맛, 또한 나의 모든 삶의 방면에서 실질적인 영성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기다림과 절제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 장 7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향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좋은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되심과 그분의 모든 능력, 권위,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때까지 늦추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좋은 것까지도 다 내려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 편 3-4 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기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Advent – A Season of Waiting**

*I wait for the Lord, my soul waits,  
and in his word I hope;  
My soul waits for the Lord  
more than those who watch for the morning,  
more than those who watch for the morning.  
(Psalm 130:5-6)*

*Advent.* The word itself is from the Latin *adventus* – “coming.” Following the weekly Revised Common Lectionary during Advent season, which begins on the fourth Sunday before Christmas, we see that we are waiting for two types of coming of Jesus: past and future-- Jesus’ first coming in Bethlehem, and then his future return, or second coming. Not only do we wait to celebrate Jesus’ birth in Bethlehem, but we also wait for Jesus’ return.

According to tradition, Advent is a season of preparation and penitence. It is a season during which people fasted, like Lent, preparing their hearts for Jesus’ coming and dwelling with us – *Immanuel*. During Advent, the color of the liturgical banners are purple, the color of repentance. Some churches have shifted to the use of blue, the color of hope. As John the Baptist proclaimed that the Kingdom is at hand before Jesus’ earthly ministry, people repented and fasted. As we anticipate Jesus’ Kingdom coming, the season of Advent proclaims that we repent and fast for the return of our King.

Why fast? Fasting is a great spiritual discipline of waiting. We are privileged enough to *instantly gratify* our hunger and our appetite. In our society, food and material things are *instantly* available to us. Our part of the world has done a good job training us for *instant gratification* – getting what

we want quickly and conveniently. To fast is to practice *delayed gratification*, not letting our hunger and appetite dictate our consumption. It conditions us to re-evaluate our sense of need. It conditions us to wait. Fasting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involve food only. It can be practiced creatively and in various ways, by practicing restraint. What kind of fast/restraint will you practice during the remaining days of this Advent? Excess speech? Impulse buys? Picky diet?

Jesus first demonstrates his own restraint. Philippians 2:7 says that Jesus “emptied” himself. He fasted from not *bad* things, but *good* things. He *delayed* his own equality with God (Philippians 2:6). He fasted from his power, authority and his glory only to be with us - *Immanuel*. In response to this, I invite you to pray Psalm 8:3-4

*When I look at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that you have established;  
What are human beings that you are mindful of them,  
mortals that you care for them? Amen.*

(Pastor Peter Ahn, Youth/College Pastor)

##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

아! 벌써 그 때이 다시 돌아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집 거실에 세워지고 크리스마스 등으로 장식되고, 아이들은 축제의 명절을 기다리며 “새로운 왕께서 오심”을 부릅니다. 물론 저는 포근한 소파에 걸쳐서 따뜻하고 은은한 커피를 즐기게 되겠지요. 모든 일이 즐겁고 흥겹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른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25 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을때, 아직 성탄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의 마지막 수업이 12 월 20 이라서, 선생님들께 선물을 준비할 시간도 줄었고, 반에서 파티도 준비해야 하고, 쿠키도 굽고, 점심준비 자원봉사 등... 졸졸히 제 앞에 남은 일들은 매 해마다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과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 들어가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따라오게 되지만,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 및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더욱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기간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표현이며, 물질적인 것들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 감사, 사랑 등을 표현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 분,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당연히 여기며 매일의 생활을 반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수하는 희생양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강절관 관련된 전통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 **과거-예수님의 성탄;** 2) **현재-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함께 하심;** 그리고 3) **미래 - 예수님의 재림.**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세속적인 물질과 분주함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새로운, 의미있는 전통을 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의 삶을 둘러쌀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우리 가정의 전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대강절 이야기 책을 잠자리에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딸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대감으로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작은 딸은 졸음을 못 견디고,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우리 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들의 삶에 등장하셨는지 궁금해 하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보다, 우리 딸들의 삶에 등장하시는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 짐을 느낍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표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긴 여행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 세우시고, 부흥 시켜주신다는 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그래서 남은 대강절 기간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체험하길 원합니다.

Advent. Adventus. Ecce advenit Dominator Dominus

“보라, 만군의 주님께서 임하신다.”

(김지연,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 Journeying with My Jehovah

Ahhh, it's that time of the year again. Our Christmas tree is up in our living room, the festive lights are on the tree and all around the house and kids are singing "Coming of the new King" in anticipation of the most celebrated holiday of the year. And of course, I'll have to snuggle on a sofa with a warm blanket and a hot cup of Joe. All happy thoughts, right? Not really! It suddenly struck me one morning that Christmas is less than 25 days away and I had NO gifts stacked up in my secret hiding place!

Since the last day of school for my girls is on December 20, I have less than 20 days to get teachers' gifts ready, class parties to prepare, cookies to bake and lunches to volunteer. And my list seems to grow longer every year. It is both amazing and amusing to see how your focus shifts from "pre-kids" to "post-kids" life. Things get more complicated as your family expands and hence, it requires more of your time and effort. I believe taking the extra time and effort to celebrate your children (family), friends and significant figures during this time of year is not only important but also necessary. As we put our minds and energy toward our loved ones, we're delivering not only our material gifts, but also conveying our hearts of appreciation, love and gratitude. But in the process, we tend to overlook the most important message of this blessed season: our true giver, our Savior and his ultimate sacrifice toward our mankind and the new life he represents for us. His grace came so easy to us that we take His gift for granted every day. Jesus was the only baby who was born to die as a sacrificial lamb to save us from the eternal fall. We celebrate his birth and enjoy this festive holiday, but often forget why he came to us in the first place. I read it somewhere that the tradition of Advent is a threefold celebration of the birth of Jesus, his eventual

second coming to earth and his continued presence in our lives here and now, God in our past, God in our future, God in our present.

This Advent season, I want to sway away from the worldly traditions of gift giving, obsessing over meeting the deadlines of endless projects, and wrenching my brain to come up with an amazing Christmas feast. Instead, I plan on starting a new tradition. I plan on craving for His word and setting my intense focus on Him. I plan on eagerly desiring God's presence and power in my life and over my family.

As an Advent tradition, I have started reading an Advent storybook with our girls before their bed time. As I read the story to them, I can sense my older daughter's undivided attention and the anticipation as the story folds. And I can see my younger daughter's eyes slowly shutting, no matter how hard she tries to keep them open. Each night, they can't wait to hear the next day's story to find out how the Jehovah leads the main character's journey. It is both exciting and overwhelming to see how our God leads, not only mine but our children's lives. He's so involved in our journeys and as my dear friend puts it, He will restore, heal, renew, reconstruct and revive our lives throughout our journeys. So, during this Advent season, I hope to walk this incredible journey with my Jehovah, experiencing His awesomeness all over again.

Advent. Adventus. Ecce advenit Dominator Dominus.  
"Behold, the Lord, the Ruler, is come."

(Jamie Kim, Children's Ministry Teacher)

##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의 기다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 24:44-46)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소풍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추운 겨울 퇴근 버스를 기다리고, 약속장소에서 연인을 기다리고, 아이의 첫 울음 소리를 기다리고 ... 기다림의 끝에 올 무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 설레임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지루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체 깨어 있어서 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의 약속을 생각해봅시다.

예상하지 못할 때, 원하지 않을 때, 긴 기다림에 잊고 있을 때에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안일한 삶에 간절함이 없거나, 분주하고 힘들어 뒤로 미루고 싶거나, 변화 없이 반복되는 습관에 둔감해져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심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은 영혼이 자라고,

살찌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서로 먹여주고 먹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단맛과 풍요로움,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경험할 때 기다림은 설레임이 되고, 기쁨과 소망이 되며, 눈물의 감사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용서를 위해 회개를 위해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8-9)

주님!

주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닦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한 양식을 사모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삶의 안일함, 분주함, 둔감함 그 어떤 것으로라도 내 영이 잠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성우 장로, 재무 위원회)

## Waiting, by A Faithful And Wise Servant

*“so you also must be ready, because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 whom the master has put in charge of the servants in his household to give them their food at the proper time? It will be good for that servant whose master finds him doing so when he returns.”*

(Matthew 24:44-46)

We always live while waiting in anticipation, or in hope, for something. We wait for a sunny day in the morning of a picnic outing. We wait for our result after an exam. We wait for a bus after work in a cold weather. We wait for a date at an agreed location. We wait for the first cry of a baby... We wait, because we anticipate that there will be something we expect, and hope for, at the end of our waiting.

When our waiting becomes a long one, however, we get tired; we lose our patience; and we get frustrated. It is not an easy ordeal to faithfully labor, especially we are not told how long we are supposed to wait. How, and how long, must we wait for the return of our master? I reflect on a faithful and wise servant, and the promise of the master.

Jesus tells us to be ready when we do not expect him, perhaps when we are likely to forget after a long period of waiting – when we may have even lost our desire to do so. This seems to be a reminder for us to guard our hearts against indifference in our comfortable and complacent days; pushing aside our intentional waiting in our busyness; and losing our sensitivity in our routinely motions.

In our God-given relationships, He wants us to commune in Him. Faithful and wise servants diligently grow spiritually in wellness and maturity – communally nurturing others and being nurtured by others.

The Word of the Lord turns our waiting into an exciting anticipation when we consume and experience in the sweetest, most abundant in the extent of His love so amazing. The Word of the Lord is received in our heartfelt gratitude.

Our God also patiently waits to forgive us – for us to repent and to bring about salvation...

*“But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dear friends: With the Lord a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are like a day.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2 Peter 3:8-9)*

O Lord!

Make us to image your patient waiting. In the meantime, we desire to commune in your nurture and to share your abundance with others. Help us, so that our own complacency; purposeless busyness; and numbness might not make us fall asleep at your return. When you return, we want to be found to be faithful and wise servants.

(Elder Sung Woo Lee, Finance Committee)



## **CRISIS (위기) 입니까?CHRISTMAS 입니까?**

“처녀(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29-33)

지난 주 동안 다섯 사람에게 성탄절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분주하다; 비싸다; 상업적이다; 흥분된다; 감정을 건잡을 수 없다. 놀랍게도 다섯가지 반응 중, 네 가지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도 초조함을 조금씩 느낍니다. 그런 와중에 14 세의 마리아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리아는 19 세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앞두고 셀레이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지내던 때에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세상이 흔들리고, 그녀의 인생을 뒤바뀔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는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눅 1:28) 여러분도 이와같은 마리아의 상황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두렵다는 말로도 그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모자랄 것입니다. 천사가 두려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께서 함께하신다고 먼저 말씀했을 정도로 그녀의

두려움은 겉으로 드러났나 봅니다. 마리아가 감히 천사에게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 조금 어긋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을 보면 분명 이해할만 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눅 1:34)라며 천사에게 묻자, 천사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같은 대답은 몹시 불편한 마음을 줄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아이를 임신한 사람은 역사에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세상에 모든 것을 초월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리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는 곧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 장 말씀으로 격려가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읽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당신의 삶의 여행에 점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반응은 crisis (위기) 로 마감 것인가, 아니면 Christmas (성탄) 로 마감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Susan Mills 집사, 어린이 주일학교 담당)

## CRISIS OR CHRISTMAS?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s and wondered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You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call him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Jacob’s descendants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Luke 1:29-33)*

This past week, I asked five people to describe Christmas. Here are the responses: hectic, expensive, commercial, exciting, and overwhelming. To my surprise, four out of five comments were negative. I have to admit I feel a bit of panic when I look at a Christmas calendar countdown. But also I must pause and remember a beautiful message in the story of a 14 year old girl named Mary. She was overjoyed with anticipation about her marriage to a 19 year old man, Joseph. Then something happened that could have rocked her world. The angel Gabriel showed up with life-changing information. He started the conversation with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Luke 1:28) Can you imagine the fear Mary must have felt? Terrified probably doesn’t begin to describe this emotion. Her fear must have been visible though, because the angel told her to stop being afraid, for God was with her. And then Mary asked a question. Questioning an angel seems inappropriate and unlikely for a teenage girl, but the question is understandable, especially this question in this circumstance. It was a very good question too. She asked, “How will this be, since I am a virgin?” (Luke 1:34)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Luke 1:35)

That answer could not have come as great comfort, because no one in history had experienced that type of conception before. How can one truly understand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out of this world”? I’m sure Mary’s heart and life were hectic and overwhelmed. This could easily have been a crisis in Mary’s life, but instead she basked in God’s glory and let her moment of crisis become Christmas for all. What beautiful words Mary sai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Let me encourage you to read Luke 2, and read it like it is the first time you have ever heard the story. Then think about where you are in your life. Is this going to be a crisis, or is it going to be a Christmas?

*(Deacon Susan Mills, Children’s Ministry Director)*

## 그 이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이사야 9:6)

본문(사9:6)에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에 대해 다섯 가지의 중요한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것은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또한 이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1. **기묘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성경은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다”(눅 11:14)고 말씀합니다.
2. **모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직 없었다”(요 7:46)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3.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임을(요 10:30) 말씀하셨습니다.

4. **영존하시는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설계자이십니다.(요 1:3, 히 11:3)
5.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서 공의로 다시 통치하시기까지 이 땅에는 평화가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이루신 화평(평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이러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기 속에서도 힘과 소망과 기쁨을 주며, 어떠한 슬픔도 인내하고,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최근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분이 곧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 'Preparing to Celebrate Christ's Birth')

## The Name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Isaiah 9:6)

In this Scripture we find the message and meaning of Christmas. Isaiah the prophet gave five awe-inspiring names of our Lord that encourage us, thrill us, and fill us with hope at this Christmas season.

1. **Wonderful.** When He did His many miracles, the Scripture says, “The crowd was amazed”(Luke 11:14)
2. **Counselor.** The people said, “No one ever spoke the way this man does”(John 7:46)
3. **The Mighty God.** He is the God-Man. He said that He and the Father are one (John 10:30)
4. **The Everlasting Father.** It was by Him, the living Word, that all things were created. He is the designer of the whole universe (John 1:3; Hebrews 11:3)
5. **The Prince of Peace.** There will never be lasting peace on earth until He comes again to reign in righteousness. But He is also the Prince of Peace in other ways. None can have peace with God apart from Him and the peace that He mad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Colossians 1:20)

The full meaning of these words from Isaiah should give us enough strength, hope, and joy to face any crisis, endure any sorrow, and meet any temptation.

How has Jesus shown you recently that He is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Rev. Billy Graham, ‘Preparing to Celebrate Christ’s Birth’)

## 나에게 예수님의 의미는

성탄절을 맞아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날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그 분의 탄생의 의미는 파티 분위기에 묻혀진 듯 합니다.

오래 전, 저는 스스로 '나에게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한참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늘 제 마음에 '당연한' 것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삼위일체에 근거하여 하나님이기도 한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에서 거의 세뇌를 당해 아무 의심도 없이 그저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이천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거지? 그건 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역사적으로 보여진 사실일 뿐, 교회에서 가르치듯,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죄스런 마음이 들던 중,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몇 천년이 지나 태어난 저를 위해 그

옛날에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건지 제발 이해하게 해달라구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의문 조차 가질 수 없도록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날 내가 범하고 있는 죄와 회개보다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평안을 찾는 안식처, 아니 어쩌면 '편의의 하나님' 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의 나를 사랑하심이고, 또 그 사랑하심은 나로 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빛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번 대강절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임희진 집사, 영어예배 EWS)

## What Does Jesus Personally Mean to Me?

The time we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gets hyped with the Christmas “holiday” excitement. Jesus, however, the center of our celebration, seems to get buried in the holiday celebration atmosphere. A while ago I wrestled with the following question, “What does Jesus personally mean to me?” I was born and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and my convictions about Jesus’ existence and His identity have always been unquestionably engrained in my mind. Jesus of the Triune Godhead, the one who also became human and suffered death on the cross for *our* salvation from sin, was my indoctrinated knowledge about Jesus whom I have never doubted or questioned. Then one day, a question in my mind struck me, “Why did Jesus suffer such a painful death for *me* about two thousand years ago, when I had not even been born?” At that time, simply thought, “His death on the cross must have been for the sake of the Israel’s sin.” To me, the church’s teaching of Jesus’ earthly life and death merely used to mean as a simple historical fact, but I could not logically comprehend that Jesus died specifically for me. Feeling guilt-ridden for trying to comprehend it on my own, I finally found courage to pray: “Please! Help me to understand why Jesus came thousands of years ago only to suffer and die for my sake.” One day during prayer, I received a convicting response, which certainty that I found unquestionable. Without Jesus’ earthly birth and His death, there would not have been any conviction of my sin which leads to repentance. Perhaps without His birth and His death, God may well have become to me a mere a place of

comfort and ease, or more like the ‘God of convenience.’ Once again, during this Advent season, I reflect that Jesus’ earthly means His love for me today; His love for me entails conviction of my sins; and the conviction leads to His illuminating path to His perfect love.

(Deacon Heejin “Jeanie” Lim, English Worship Service)

## 열망과 침묵의 기다림

(합 2:3, 살전 1:10, 행 1:4, 막 15:43, 시 39:7,8, 창 49:18)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것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기다리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고 이 세상에 아이가 나오기를 10 개월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장한 어린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돌아 올 아들을 기다립니다. 또 어린 아들은 외출한 엄마가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세월이 지나 그 아들은 한 여인과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고..., 긴 세월 동안 한 여인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이기도 하고 고통과 불안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항상 아름답고 두근거리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문제가 주어집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라 보지 않고 선물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기다림에는 침묵해야 하는 고통도 따르는데 우리는 그 침묵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확인하려 들곤 합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답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John Dryden)도 "고통 받을때는 침묵이 최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기다림의 침묵이 끝난 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시편 40 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귀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시 40:1,2)"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 여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예수의 탄생일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희망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기다림 일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침묵으로 주님의 다시오심을 기다려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위해서 우리가 침묵해 조용한 틈을 만들어 주님이 들어 오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걱정 많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고대하면서도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의 소음으로 나를 막고 있습니다. 메시아 오시기를 대망했던 동방의 박사(마 2:1-12),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눅 1:67-79), 예루살렘의 시므온(눅 2:25-35), 여선지자 안나(눅 2:36-39) 들 처럼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망의 심령으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답이 있다는 긍정의 맘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 부터 옵니다. 나의 힘으로 기다리다 보면 조바심으로 확인하려 하고 나의 말로 침묵을 깨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힘은 물론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게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 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님 오심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침묵의 기다림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문일호 장로, 예배위원회)

## **A Fervent Hope and Anticipation in Silence**

Our lives may be characterized by ever-continuing anticipation. Perhaps we might say that we learn to get used to anticipate over time. An expectant mother anticipates the birth of a new child for about 10 months. Parents anticipate retuning of their children everyday to return home well from their school. A child awaits, or anticipates, the return of his/her mother from her outing. In their adulthood, one waits, or anticipates, the appointed time of his/her date in a courtship..., after a long waiting of the love of his/her life.

Such anticipation varies in its specific persons and in content, but the anticipation in its natures commonality. Such anticipation, which requires much waiting in patience, at times brings us hardships and uncertainty, perhaps even insecurity. Not every act of waiting, or anticipation, entails excitement in its romanticizing beauty. At times great agony will follow. Problem will present itself. Resolution of problems will necessitate the labor of waiting and anticipation of what is to come. It is said that, when problems in life emerged, Mother Theresa saw them not as problems, but rather as a gift to be embraced through life. According to her, we do better to maintain positive attitude, because every problem has its solution. Thus, we wait and anticipate for it.

Moreover, anticipation often requires the agony of waiting in silence. Far too often we avoid this silence by filling the void with interventions. Resolution must come through silence. An English poet, John Dryden remarked, "Silence in times of suffering is the best." We also see that, in Psalm 40, David only basks in the joy of God's salvation after his silent waiting.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he turned to me and heard

my cry. He lifted me out of the slimy pit, out of the mud and mire; he set my feet on a rock and gave me a firm place to stand." (Psalm 40:1-2)

We are living in Advent. Advent literally means "coming," on which we wait. It is a season of hope when we most intensely wait in remembrance of baby Jesus' birth 2,000 years ago, while also waiting for his return. Waiting in hope is necessary in order for us to wait on his un-forecasted coming. It is necessary that our hearts maintain fervency in our waiting. It is also necessary that we wait in silence on our Lord's return. In our daily busyness, through our silence, we must allow a place of stillness to hear our Lord's voice. While we anticipate the Lord's coming among us, the noise of our anxiousness too often bury our silence.

The magi from the east (Mt 2:1-12); Zechariah, the father of John the Baptist (Luke 1:67-79); Simeon of Jerusalem (Luke 2:25-35); prophetess Anna (Luke 2:36-39); and their anticipation of the coming of the Messiah exhort us to arduously wait for Him. They exhort us to wait with heart of great expectation, meeting problems in life with anticipation for resolution and maintaining positive outlook. The source our strength that enables us to wait comes from God. When we anxiously attempt to intervene, we break this silence with the utterance of our hearts. The power that comes God is through His Word. The Word becomes our thought and action through the Holy Spirit. Through our meditation of the Word of God, may our fervency increase towards the Lord's coming; and may the Spirit of God maintain our silence.

(Elder Ilho Moon, Worship Committee)



##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기다림

(눅 2:25-35, 고전 15:20-28, 50-58)

기다림은 불완전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인정이고,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대상의 필요에 대한 동의입니다 (눅 2:22).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의해 짓밟히고 왜곡된 세상에 대한 탄식은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도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내 안에 이러한 기다림이 없다면, 나에게서는 그러한 영적 책임감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미 영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형을 맛보며 연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 땅과 무관한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 1:11), 철저히 내 발이 딛고 있는 땅을 지향하는 삶일 것입니다 (행 1:8).

“두 번째 사실은 최종적 나라와 그것을 기다리는 현재의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행위인 새 창조이며, 첫 창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새 창조의 유일한 원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고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복음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한 번 고린도전서 15:58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곧 낭떠러지로 떨어질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불에 던져질 위대한 그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파헤쳐질 정원에 장미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부활만큼이나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될 일을 우리는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툼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IVP, 318-319)

(한경준 집사, 중고등부/청년 2부)

## Waiting in the Kingdom Perspective

(Luke 2:25-35, 1 Corinthians 15:20-28, 50-58)

To anticipate is to acknowledge incompleteness of present time. Therefore, to anticipate is to affirm the need for that which we wait. (Luke 2:22) Accordingly, our anticipation with great desire continues for the fulfillment and the arrival of God's Kingdom, while presently lamenting what seems to us as God's justice and peace being marginalized, or even trampled, by worldly ambition, power and materialism. If I do not maintain such anticipation, it may mean that I do not hold this necessary spiritual burden.

We presently anticipate for Jesus' return. However, God's presence in Spirit is being manifested as His true presence among us, and this very presence begins now our very practice and living into the perfect life in God's Kingdom. In other words, anticipating Jesus' return does not mean looking to escape into some other world unrelated to this one. (Acts 1:11) Rather, it means that we intentionally live how we were (and are) meant to live here and now.

*Second, w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final kingdom and the present anticipations of it. The final coming together of heaven and earth is, of course, God's supreme act of new creation, for which the only real prototype – other than the first creation itself – was the resurrection of Jesus. God alone will sum up all things in Christ, things in heaven and things on earth. He alone will make the “new heavens and*

*new earth.” It would be the height of folly to think that we could assist in that great work.*

*But what we can and must do in the present, if we are obedient to the gospel, if we are following Jesus, and if we are indwelt, energized, and directed by the Spirit, is to build for the kingdom. This brings us back to 1 Corinthians 15:58 once more: what you do in the Lord is not in vain. You are not oiling the wheels of a machine that is about to roll over a cliff. You are not restoring a great painting that's shortly going to be thrown on the fire. You are not planting roses in a garden that's about to be dug up for a building site. You are – strange though it may seem, almost as hard to believe as the resurrection itself – accomplishing something that will become in due course part of God's new world. (N.T. Wright, *Surprised by Hope*, IVP, 208)*

(Deacon KJ Han, Youth Ministry/Young Adult Ministry)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8-10)

첫번째 성탄절 밤,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녘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9 세기 위대한 유대-기독교 학자인 알프레드 에더샤임은 자신의 책, ‘메시아 예수님의 삶과 시대’라는 책에서 천사들이 나타난 목자들과 양들은 여느 목자들과 양들이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그 양들은 성전의 희생제사를 위한 양들이었고, 그 목자들은 종교적 제도권으로부터 쫓겨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삶의 방식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밤에 이처럼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한 목자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며 모든 사람에게 평화 주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번째 크리스마스에 한 가지 중요한 목적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시게겠습니까?

(빌리 그래함 목사, ‘Preparing to Celebrate Christ’s Birth’)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Luke 2:8-10)

On that first Christmas night, the angels appeared to shepherds on a hill near Bethlehem. Alfred Edersheim, the great 19<sup>th</sup> century Jewish-Christian scholar, wrote in his book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that the shepherds and the sheep to whom the angels appeared near Bethlehem were no ordinary shepherds and sheep. The sheep were those bound for the temple sacrifices. The shepherds were outcasts because of their necessary isolation from religious ordinances. And their manner of life rendered legal observances unlikely, if not absolutely impossible. How wonderful that in God’s wisdom and love the angels should appear to them – the doomed and the outcast – that night.

Today we can declare to the world that the Good Shepherd cares for all people and wants to give them peace. Christ came on that first Christmas for one great purpose – to die on the cross for our sins. Now God offers forgiveness, inner peace, and eternal life to all who will repent and believe in His Son. This is the Christmas message!

Do you know people who need to hear about God’s love and forgiveness?

Will you share the true Christmas message with them this year?

(Rev. Billy Graham, ‘Preparing to Celebrate Christ’s Birth’)

## 깨어 있으라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을때 그를 고대했던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가운데, 또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으나 마음은 장님이었고, 그들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 24:42)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롬 13:11)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어떠 해야 하는지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라,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십니다” 크게 외쳐야 겠습니다. 대강절 기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해마다 찾아 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는 바짝 깨어서 주님을 고대 하며,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정결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 합시다.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을 맞이 할 준비를 합시다. 이 거룩한 계절을 소망 가운데서 보냅니다.

(김석호 장로, 선교위원회)

## Keep Watch

Then the Savior came to this world, not many people were anticipating His coming. The Lord has come to this world in His own terms. During those times, not many people have considered the essence of life and of this world. While eyes were wide open, the eyes were not able to see. While living, the lives were a sleep in darkness. Our Lord tells us still today, “Therefore keep watch.” (Matthew 24:42) Apostle Paul said, “The times has come for you to wake up from your slumber...” (Romans 13:11) Our soul must remain awake, being mindful of the purpose of our existence and how our lives must be conducted in this world. Our very lives must shout out loud, “Behold! Here comes the Lord! Here comes our Savior!” In this Advent season, we prepare our hearts for the coming of our Lord. Let us anticipate for the Lord Jesus’ coming in wakefulness, taking a careful inventory of our lives and with pure hearts, and not as another merely unintentional Christmas season. Let us prepare our hearts to receive Jesus, emptying our worldly tendencies. Let us spend this holy season with the hope of our Lord.

(Elder Howard Kim, Outreach Committee)

## 감사가 넘치는 삶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 해 주시고 또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임재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죄는 이미 오래 전에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오직 한 가지 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경계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타락되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책임을 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4)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값 없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엡 2:8)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골 2:6-7)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물론 좋은 건강과 화목한 가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복 외에 영적으로 받은 복에 대해서도 감사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 속에 누리며 사는 것, 우리의 잘못을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있을 곳을 마련 해 놓으셨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해야 할 이유들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충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근하 장로, 총무위원회)

## **Life Filled with Gratitude**

To truly live in thanksgiving is to acknowledge in God's sufficient provision, and to affirm that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God. I believe that, when God dwells in us, gratitude and thanksgiving is a natural result in a tangible way. Again, all good works come from God.

The sin of ingratitude was first committed a long time ago in the Garden of Eden. After creation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God allowed a perfect environment for us with only one restriction. The first humans were not content, and crossed their lot, rejecting God and His will only to live in fallenness.

The task now left to us is a difficult one, to live righteously in the fallen world. However, we hold with certainty that Jesus Christ has given his life for our salvation, giving His life to take all sinner's responsibility into His own hands. Ephesians reads, "God chose us in Christ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Eph 1:4) Also, God has gifted us faith by grace, with no price tag on it, drawing us to our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Eph 2:8) Paul exhorts all the believers to overflow with thankfulness. (Col 2:6-7) As we receive Christ Jesus as Lord, we are deeply rooted in God as God's children. We must be thankful for this alone for the rest of our lives.

Of course, it is right to be thankful for physical wellness and peace in our families; however, our thankfulness must go beyond material matters. We do better to thank God for the work of the Spirit in us and among us.

There are many things to be thankful for: that God has chosen us in Christ; that God's will be done throug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at we may live with God's peace in our hearts; that God covers our sins with His unconditional love; that God's provision is always sufficient for our needs; and that God has made his place our home in the end.

All of these reasons to thank God are uniquely God's gift. Accordingly, we must make intentional choice to thank God. God directs our lives when we are filled with thankfulness. This is when we live in Christ, and when Christ's righteousness; love; and mercy flow into (and through) us.

(Elder Kenneth Kim, Administration Committee)

##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마치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Merry Christmas!” 라는 성탄 인사 보다는, “Happy Holidays!” 또는 “Season’s Greetings!”라는 인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듣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Merry Christmas!”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나, “Happy Holidays!”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Merry Christmas!”라는 성탄인사 가운데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인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Christmas”는 old English 로 “Cristesmæsse”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Cristes(Christ)”와 “예배”를 뜻하는 “Maesse(Mass)”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가 바로 “Christmas”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Merry Christmas!”라고 성탄 인사를 나눌 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기뻐하세요!”라는 뜻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물론, 성탄절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면, 성탄절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결코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의 근원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기뻐하세요!”)

(김일선 목사, 낙스빌 한인교회 담임목회자)

## Why Christmas Is Rejoiced

As we approach Christmas, we often greet by saying, “Merry Christmas!” Often the meaning of the phrase, “Merry Christmas,” does not seem to be used in its fully intended meaning. “Merry Christmas” often seems to be used as a seasonally appropriate way to greet one another; in a similar way we use the word, “Amen,” to conclude a prayer. Somewhere along the way, phrases such as, “Happy Holidays!” or “Season’s Greetings!” have widely replaced “Merry Christmas!” With exception to church context, it is no longer uncommon not to hear, “Merry Christmas!” Some of us may wonder what is such a big deal whether we use, “Merry Christmas!” or “Happy Holidays!” Addressing and recovering the meaning of the following reveal to us why the phrase does not function merely as a neutral greeting: What is the meaning of the phrase, “Merry Christmas?;” and why do we as Christians joyfully celebrate the birth of Christ?

Etymologically, “**Christmas**” traces back to an Old English term, “**Crīstesmæsse**,” which compounded the following two words: Crīstes (Christ) and mæsse (Mass, or “worship”). Thus, the intended meaning of “Christmas” is to “worship Christ.” Accordingly, when we greet by saying “**Merry Christmas!**” we really mean, “**May you be merry (be happy, or rejoice) as you worship Jesus Christ.**”

Certainly, there are many reasons we rejoice this time of Christmas - in our time with family, in exchanging

gifts...etc. However, if many joys we share during this time does not ultimately find their source in worshipping Jesus, then these joys indeed are not true ones. The true joy exists in finding joy of worshipping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offers forgiveness of sins and eternal salvation. This is the joy we embrace for ourselves, as well as share with others. On this blessed Christmas, as we rejoice in worshipping Jesus, I pray and hope that we deeply encounter Jesus, the fountain of our joy.

**“Merry Christmas!”**

**“May we rejoice as we worship Jesus Christ!”**

(Rev. IL Sun Kim, Pastor of Korean Church of Knoxville)



